

과열수주 차단 신고센터 운영… 입찰무효 전철 안밟는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연 방지

반포13주구

부정행위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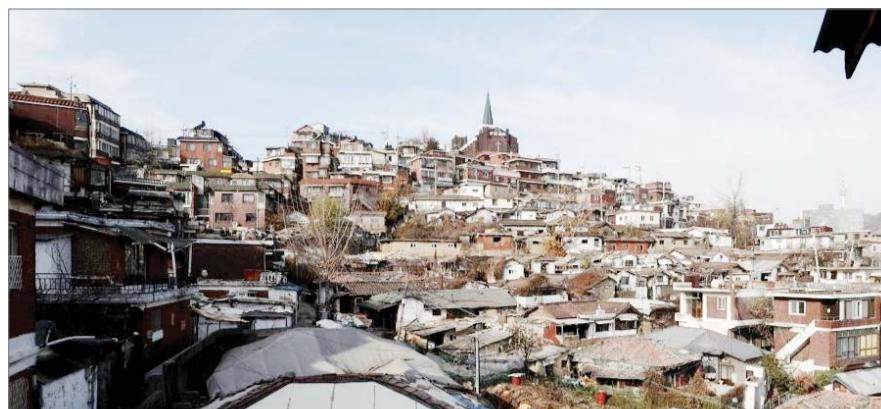
한남3구역

市, 금품·향응수수 맨 수사 의뢰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에 이어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13주구)까지 신고센터 운영에 나서면서 시공사 선정을 앞둔 주요 정비사업장이 과열수주전 논란 사전 차단에 힘쓰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13주구 재건축 조합은 17일 입찰공고를 내고 지난 13일 대의원회에서 건설사의 개별홍보금지 등 부정행위를 직접 단속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주전 과정에서 건설사 간 발생할 수 있는 과열 경쟁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13주구 재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신고센터 운영을 결정해 눈길을 끈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건축 조합은 대의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계획서’를 논의했다.

조합은 외부 용역업체 홍보요원(OS 요원)의 조합원 접촉, 홍보물 배부, 플래카드 부착 등 건설사 개별 홍보 활동을 금지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공사 입찰 공고일 때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일까지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공자 선정계획안을 지난 대의원회에서 가결했다. 조합은 이날 시공사 입찰공고를 내고 4월 10일 입찰을 마감한다. 현장 설명회는 오는 25일과 5월 1일 두 차례 열고, 5월 16일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

한다.

현재 반포13주구 재건축사업에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이다. 시공사 지위를 잊은 HDC현대산업개발 등 일부 대형건설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수주전에 관심을 보인다.

반포13주구 재건축은 서초구 반포동 1109 일대 1490가구를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8087억원이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의 과열 경쟁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입찰 무효 판단을 받고, 다시 수주전을 밟고 있다. 최근 한남3구역 재입찰 수주전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서울시가 신고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시는 현장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 사안별로 분류하고 금품·향응 수수 행위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고발 조치한다.

현장신고센터는 오는 4월 26일 시공자 선정 완료 시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은 하루 2시간(오후 2~4시)이다. 그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0일 열린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롯데 건설과 수의계약을 맺는 안건을 통과 시켰다. 조합 층은 내달 8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 및 수의계약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합원 상당수는 시공자 입찰을 다시 강행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수주전 논란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 지연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부의 규제 수위가 오른 상태에서 내린 적절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머신 컨트롤·AI로봇… 건설업계, 디지털 기술 ‘각축’

데이터·IT기술로 품질↑ 사고↓ 24시간 작업으로 공사기간 단축도

건설업계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바람이 거세다. 또 데이터와 IT기술을 접목한 건설장비를 활용해 품질향상, 하자와 안전사고까지 줄이고 있다.

최근 대림산업은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 기술을 공사 현장에 도입했다. 머신 컨트롤 기술은 굴삭기와 불도저와 같은 건설장비에 각종 센서와 디지털 제어기 등을 탑재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작업을 도와준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장비 기사는 운전석에서 작업 범위와 작업 진행 현황, 주변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굴착기의 경우 별도의 측량작업 없이 굴착



경기도 성남에서 건설중인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현장에서 머신 컨트롤 장비를 정착한 굴삭기를 이용해 토목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림산업

작업의 위치와 깊이 등 각종 정보를 20mm 허용오차 이내로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부터 다관절 산업용

로봇을 국내 건설 현장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갖춘 현대건설의 산업용 로봇은 기존 로봇과 달리 사람의 손만큼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 드릴링, 페인트칠 등 단일 작업이 가능한 건설 현장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로봇은 24시간 작업이 가능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 투입할 경우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쌍용건설이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공사 관리 플랫폼’은 건설현장에서 QR 코드를 기반으로 시공 현황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스마트기기용 앱으로 건물 벽면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공종별 진행 사항을 확인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다. 쌍용건설은 QR코드 기반의 시스템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

악하는데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이고 업무 생산성도 높일 예정이다.

건축 기법에서도 레고 블록처럼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조립 기법인 모듈러 공법이 각광받고 있다. 현재까지 모듈러 시장은 선진국 위주로 형성돼 왔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모듈러 시장이 커지고 있다. 국내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이 모듈러 사업에 적극적이다. 올 초 미국과 유럽의 선진 모듈러업체 3곳을 동시에 인수해 인수업체간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모듈러 시장에서 입지를 다질 계획이다.

김정현 대림산업 전문임원은 “대림은 올해부터 모든 공동주택의 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대신증권 프라임 투자상담 서비스 온라인·유선 1대1 상담

대신증권은 17일 대신증권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프라임 투자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라임 투자상담 서비스’는 대신증권 온라인 거래매체(HTS, MTS)를 통해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채권, 금융상품 거래를 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했던 경험이 있었거나, 혼자 거래하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고객들을 위해 기획했다.

이 서비스는 프라임 어드バイ저(PRIME ADVISOR)가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1대 1 맞춤 투자상담과 추천 종목 및 금융상품 등을 제시해 주는 서비스로 주식, 펀드, ELS, 채권, 금융상품 전문가로 구성된 10여명의 프라임 어드바이저가 활동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



HDC현산, 홍은13 재개발 시공사 선정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의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5일 오후 단독 입찰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총원 235명, 참석자 198명 중 찬성 194표로 조합의 절대적 신임은 얻으며 시공사로 선정됐다.

홍은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은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1-111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15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 20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8월 건축심의 등을 거친 후 2022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장위15-1구역은 내부순환고속

호반건설, 장위 15-1 가로주택정비 수주

올해 도시정비분야 마수걸이

호반건설이 서울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호반건설은 지난 15일 서울 장위15-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올해 도시정비 사업 분야 첫 수주다.

이번 사업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258-2일대에 지하 2층~지상 15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 206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8월 건축심의 등을 거친 후 2022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장위15-1구역은 내부순환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 도심지 접근이 우수하고 상월곡역, 돌곶이역과도 인접한 역세권 사업지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올해는 서울 도



장위15-1구역 조감도. /호반건설

심권인 장위15-1구역에서 첫 수주를 하게 됐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추가 수주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인근 지역의 추가 수주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하이투자증권 주식담보대출 금리인하 5월 31일까지 이벤트

하이투자증권이 오는 5월 31일까지 주식담보대출 금리 인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영업점 신규 거래 고객은 주식담보대출 이자율을 60일 간 연 2.9% 또는 90일 간 연 3.4%(개인 10억원, 법인 2억원 한도)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주식매매금액 또는 주식담보대출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객(선착순 300명)에게는 백화점 상품권(2만원)을, 1억원 이상인 고객(선착순 100명)에게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또는 카카오모드 등을 증정한다. 신규 거래 후 입금 또는 타사 보유 주식을 하이투자증권 계좌로 대체 입고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선착순 500명)에게는 40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1매)을 지급한다. /송태화 기자 alvin@